



축산 정세

불황우려속 돼지 사육두수 계속 증가

9월말 현재 총 4백53만두 사육

양돈경기가 하향곡선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돼지 사육두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양돈농가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농림수산부 통계에 의하면, 9월말 현재 우리나라 총 돼지 사육두수는 4백53만두로 전년도 동기의 3백40만두보다 무려 33.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총 사육두수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모돈두수도 9월말 현재 65만7천두로 전년도 동기의 48만7천두보다 34.7%나 증가했다.

특히, 돼지 사육두수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사육농가 수도 29만9천7백호로 전년 동기의 24만5천호보다 22.3%나 증가했다. 사육가구수가 30만호에 육박한 것은 지난 84년 이후 3년만에 다시 나타난 현상이다.

이는 양돈산업이 발전되면서 사육가구 수가 줄어드는 양돈선진국의 추세와 반대되는 현상으로 매우 우려되는 현상이다.

이와같이 사육두수와 양돈농가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불황기에 시작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과거의 경험론에 바탕을 두고 기존농가들이 재투자를 하고 있으며, 신규양돈업자가

속출하는데 기인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선거와 대일 돈육수출에 대한 기대가 예상외로 확산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본회 지도부의 분석에 의하며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양돈경기가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양돈농가는 대일 돈육 수출 및 그 외의 호조건에 너무 큰 기대를 갖지 말고 적정 사육두수 유지를 위해 힘써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대일 돈육 수출 호조

9월말 현재 1천6백39톤 수출

돼지고기의 대일본 수출이 순조롭게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돼지고기 수출이 지난 9월말 현재 1천6백39톤을 기록, 지난해 수출물량 8백92톤을 크게 상회하며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

특히, 물량의 증가와 더불어 수출부위도 계속 추가되어 대일본 돼지고기 수출에 밝은 전망을 보여주고 있다.

업체별 수출물량은 아래 표와 같으며, 가장 많이 수출한 업체는 제일제당으로 5백5톤을

수출했다. 이는 지난해 동 업체가 수출한 3백 49톤보다 무려 1백56톤이나 증가한 물량이다.

이와같이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원인은 국내 돈가의 하락과 엔화 강세에 따른 수출여건의 호조, 대만의 상대적인 국제경쟁력 감소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와같은 수출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출의 지속적인 증대를 위해서는 많은 문제점이 선결되어야 하는데, 무엇보다도 국내돈가의 안정을 이룩하지 못하면 지속적인 수출이 어렵게 되며, 위생적인 도축시설과 검역제도의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수출물량의 고급화를 위한 종돈개량과 수출규격돈의 생산을 위한 거세규격돈 생산기반이 확립되어야 된다.

아울러 생산원가에 부담을 주는 사료 곡물의 관세, 부가세에 대한 감면조치 등 행정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그러나 수출이 증가한다고 해도 국내 생산물량을 소진하는데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하므로 양돈농가들은 현재의 사육두수를 증가시키는 일을 자제해야 한다.

대일 종돈 수출 희망적

표. 업체별 돼지고기 수출 실적('87. 1 -9)

(단위 : M/T, \$)

업 체	수 량	금 액	수 출 부 위
제일제당	505	2,618,412	등심, 안심, 어깨살
제일농장	260	1,277,460	등심(어깨, 삼겹), 안심, 햄
남부햄	59	296,420	등심, 안심, 어깨살, 햄
구일산업	13.3	67,591	등심,안심, 목등심, 목삼겹,햄, 사태, 어깨살, 삼겹살
신창상역	70.4	356,270	등심, 안심, 어깨등심
동남육가공	313.7	1,437,420	등심, 안심, 어깨등심, 햄, 뒷다리살
한국냉장청양산업	124.9	600,189	등심, 안심, 어깨등심
은정산업	168.4	902,970	등심, 안심, 어깨등심
롯데햄	74.5	393,917	등심, 안심, 어깨살
진주햄	11.9	65,587	등심, 안심, 어깨살
서흥물산	10.0	49,215	등심, 안심, 어깨살
성창물산	1키로	-	-
풍양산업	1키로	-	-
미쓰이물산	5키로	-	-
한국햄	10.0	51,957	등심, 안심, 어깨등심
계	1,621	8,117,408	

대현농장 2차로 15두 수출

우리나라 종돈이 일본 양돈업계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 앞으로 대일 종돈 수출에 밝은 전망을 보이고 있다.

대현농장(대표 : 왕기창)은 랜드레이스, 대요크셔, 듀록 등 3개 품종의 종돈 15두를 일본의 「君馬縣」에 수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수출되는 종돈은 농장인도 가격으로 두당 20만엔에 판매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현농장은 지난 5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일본 「愛知縣」에 종돈 12두를 두당 1천7백58\$(C&F가격)에 수출한 바 있다.

이번에 2차로 종돈 수출을 하게 된 것은 지난번 일본에 수출한 종돈이 일본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데 기인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본은 엔고현상에 따라 우리나라 종돈을 수입하는 것이 가격면에서도 유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우리나라 종돈이 일본 종돈에 비해 다리가 튼튼해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종돈업계가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대처한다면 대일 중돈 수출도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중공 의욕적인 축산진흥책 추진

2천년에 돼지고기 28kg(85년대비 2배) 소비 방침

중공의 축산·사료 분야는 최근에 경제개발 계획의 추진으로 변화를 보이고 있다. 70년대 까지만 해도 몇 마리의 가축을 보유하는 영세 농가와 일부 대규모 집단농장에 의존했던 중공의 축산이 시장경제적 경제구조 개편으로 개인 소유의 허용, 외국 기술 및 자본의 유입 등으로 생산성이 증가하고 식생활 개선에 따르는 소비증가를 경험하게 된 것이다.

중공당국의 2,000년대를 향한 경제개발 계획에 의하면, 축산물 생산을 '85년 수준의 2배 이상으로 끌어 올리도록 되어 있다. 이를 부문별로 보면, '85년 국민 1인당 14kg을 소비한 돼지고기는 2,000년에 2배, 계란은 5.5배, 닭고기 7.8배 그리고 우유는 13배 이상 생산하는 의욕적인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83년에 7백만톤에 불과하던 중공의 배합사료 생산은 '86년에 1천9백만톤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앞으로도 그 신장세가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대만 내년 7월 1일부터 곡물수입 자유화

대만 정부의 국제무역부(Board of Foreign Trade : BOFT)는 지난 8월 11일 곡물수입업체와 가진 회의에서 곡물수입 자유화에 관해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

1. 1988년 7월 1일부터 밀을 제외한 모든 곡물의 수입을 원칙적으로 자유화 하고 경과조

치로서 그동안 수입업자가 BOFT에 신청하던 수입물량 확인을 1988년 1월 1일부터 면제기로 함.

2. 대미 곡물구매협정을 준수하고 대미 무역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미국산 곡물의 수입을 자동 승인

3. 곡물수입업자는 지난 7월에 대만 정부가 파견했던 제13차 대미 농산물 구매 사절단이 구매한 내년 4월까지의 선적분의 계약을 이행해야 되며, 이를 위반할 시 수입면허가 정지됨.

4. 곡물가격안정제도를 폐지하고 쌀 경작전환 보상재원으로 쓰이고 있는 수입곡물 부과금(현재 톤당 9\$ 수준)의 계속 징수여부를 검토.

이와같은 합의사항은 대만 정부의 최종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수입곡물의 부과금은 관련부문의 강력한 반대로 폐지될 것으로 알려졌다.

양돈연구회 주최 양돈 세미나 성황

국제경쟁력 제고위해 생산성 향상 기해야



한국양돈연구회(회장: 우영제)가 주최한 제6회 전국양돈세미나 및 기자재 전시회가 500여명의 양돈농가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 10월15~16일 대전기독교연합봉사회관에서 성

황리에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서 본회 전동용 회장은 축사를 통해 「양돈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원가절감을 위한 과학적인 사양관리를 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양돈인이 대동단결하여 양돈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한백용 본회 전무이사는 「국내 양돈산업의 실태와 발전방향」이란 주제 강연에서 양돈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산업을 지원하는 정책 역시 경쟁국과의 비교우위에 있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양돈원자재에 대한 불합리한 조세정책의 개선과 생산외적인 유통문제 등의 선진화 및 산업의 국제화를 지향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전무는 돼지의 개량사업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종돈능력검정사업의 확대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업계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삼양사 유성렬 과장의 「환경조건과 시설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과 개선방안」, 박영일 서울대 교수의 「생산성에 중점을 둔 종돈의 선발과 교배방법」, 정정수 충북대 교수의 「생산성에 관한 돼지의 영양과 성장생리」, 추태호 한국축산서비스 대표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록관리와 전산화」, 김태현 정약원 대표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과 예방대책」, 한면수 용인자연농원 양돈과장의 「효율적인 사양관리의 이론과 실제」, 정진성 환경정생활폐기물과장의 「양돈 폐기물의 규제법과 관리시책 방향」, 홍문표 본회 평택지부장의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양돈 폐기물 처리방안」 등의 강의가 있었다.

한편, 양돈기자재 전시회에는 (주)동방, 고려축산개발 등 많은 업체가 참석하여 성황을 이뤘다.

대한양계협회 제 3 회 전국 닭고기요리 솜씨대회 열어



대한양계협회(회장: 정태원)와 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회장: 왕준련)는 11월 4일 오후 2시 여의도 63빌딩 코스모스홀에서 제3회 전국 닭고기요리 솜씨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는 출품을 희망한 250명중 서류심사를 통과한 55명이 나와 직접 닭고기를 이용해 요리 솜씨를 겨뤘다.

배합사료공업협동조합 설립키로

중소사료업체 사장 22명은 지난 9월 28일 서울 서교동 이화에서 배합사료공업협동조합(가칭) 창립총회를 열었다.

이날 총회에서는 13명의 이사진을 새로 선출하고 취지문과 예산 등을 통과시켰으며 김용태 사장을 이사장으로 추대했다.

이 자리에서 김용태 이사장은 「갈수록 설망을 잃어가는 중소사료업체가 자구책을 모색키 위해 협동조합 설립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히고, 「앞으로 대기업과 상호 협조하여 사료공업을 발전시켜 나가자」고 말했다.

특히 김용태 이사장은 「협동조합의 설립은

대기업과 경쟁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현재의 중소기업 터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그 설립배경을 밝히고, 「앞으로 조합은 회원업체의 권익증진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돼지고기 값 인하

500g 당 1천 2백50원으로

서울시는 오는 7일부터 돼지고기 연동 고시가를 1천 4백원에서 1백50원 내린 1천 2백50원으로 조정 고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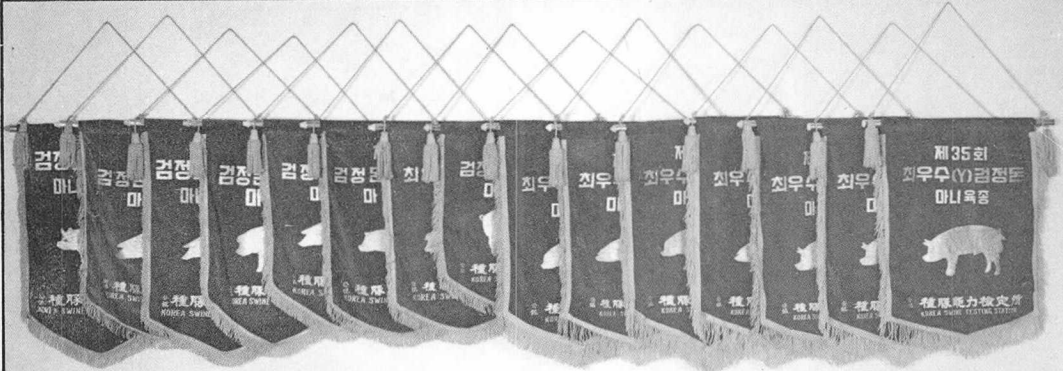
육 종 의 명 문



마니돈
MANIDON

청정종돈생산에의 진일보

- SPF 돈 작출개시 — 87. 8. 20. 천호 SPF 농장
- 가성광견병 free 공인 — 87. 8. 19. 가축위생연구소



(여전히 전국 1 위)

공인능력검정최우수돈페난트)
분양종 : A.C.D라인 (D.Y.L) 및 PS (F)



마니육종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릉동 617-18
전화 : 972-2907~9, 8101~2
농장 : 경기도 포천군 소흘면 송우리280
전화 : 포천 (0357) 32-1103